

新羅時代の 石窟寺院

秦 弘 燮*

The Stone Cave Temples in Silla Era

Hong Sup, Chin

<目 次>	
I. 序 言	Ⅲ. 新羅 石窟寺院의 類型
Ⅱ. 新羅 石窟寺院의 性格	Ⅳ. 結 語

Abstract

The stone caves in Korea, though they were first influenced by Chinese cave temples, were not made same with their predecessors in style.

Nearly all Korean stone caves are the simulated ones built artificially, and they a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A. The caves that were made up with several pieces of natural rocks with some wood works done over them to cover the open spaces between the rocks.

B. Wood works were added in front of the rock-cut images of Buddha in order to construct the cave.

C. The men-made caves Suk-kul-am in Kyung-ju is well-known among the above kind of the caves.

In short, Korean stone caves have their distinction in which they were inspired by the Indian and Chinese examples and developed their own styles to meet the specific conditions and restraints of the Korean mountains.

The extant Silla cave temples are classified in the following four groups:

- 1) The type of Shin-sun-sa(神仙寺) at Kyung-ju
- 2) The type of Ka-heung-ri cave(可興里) at Yong-ju(榮州)
- 3) The type of Kun-wi cave(軍威)
- 4) The type of Suk-kul-am(石窟庵) at Kyung-ju

I. 序 言

石窟寺院의 기원은 印度에 있었고 中國을 거쳐 韓國에 전래되었다. 印度의 石窟은 佛敎이 전부터 개척되었으나 그것이 宗敎的 용도에 이

용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세기경의 일이고, 佛敎的인 石窟이 개척되기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이며, 그후 급속도로 전파되어 현재까지 알려진 石窟의 수는 1,200 이상이고, 그 4분의 3이 佛敎窟이라고 한다.⁽¹⁾

*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長

(1) 高田修: 佛敎美術史論考(中央公論社美術出版, 昭和 44), p.90.

印度의 佛敎窟은 Chaitya(制多)를 봉안한 制多窟과 僧侶의 안식처인 毗訶羅(Vihara)窟로 구성되어 하나의 寺院을 형성하게 된다. Chaitya窟로서 가장 초기의 예로는 Guntupalle窟을 들 수 있고, Vihara窟로는 Bhāja窟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기원전 2세기경의 것이다.⁽²⁾ 이들 印度의 石窟은 대체로 數十 때로는 千窟 이상씩 군집해 있으며, 8세기경까지 거의 천년에 걸쳐 개착되었다.

한편 中國에서의 石窟寺院 造營은 기록에 의하면 366年 中國 僧 樂傳이 敦煌에서 비로소 石窟을 개착하였다고 하며 그후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³⁾ 이러한 발전상은 北魏時代에서 唐代에 걸쳐 수천의 石窟이 造營되었으니 敦煌의 4백여窟, 龍門의 천 3백여窟, 麥積山의 백여窟 등만 보더라도 그 盛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성황을 이룬 中國의 石窟型式은 印度石窟의 형식을 따라 Vihara窟이 갖추어져 있다가 唐代 이후에는 Vihara窟이 없어지고 禮拜窟 일색이 되며, 그것도 印度의 Chaitya窟의 馬蹄形 평면에서 방형으로 변하게 된다.

中國을 거쳐 韓國에 전래된 石窟寺院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中國과도 또 다른 형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제약이라 함은 첫째 韓國에는 印度나 中國에서와 같은 대규모의 岩山이 없이 한 岩山에 여러 개의 石窟을 만들 수 없었고, 따라서 비교적 소규모의 單獨窟이 개착되었다. 둘째로는 石質이 단단한 花崗石이어서 石窟 개착에 기술적인 난점이 따랐을 것이니 石窟 造營에 적지 않은 저해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印度나 中國의 石窟에 비하면 수에 있어서 미치지 못하고 石窟 형태에도 차이가 생겼다.

韓國에 있어서도 窟 속에서 修道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⁴⁾ Vihara같은 형식의 石窟이 造營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현존하는 유적은 매우 소규모로 한 石窟 안에 僧房이 群集한 본격적인 Vihara窟이나 制多를 예배대상으로 삼은 Chaitya窟 같은 것은 없다. 따라서 印度에서 Chaitya窟과 Vihara窟이 결합된 전형적 石窟

寺院 型式은 中國에서 변화를 가져왔고, 韓國에 전달되면서 규모는 작아지고 형식은 간략해졌다.

Ⅱ. 新羅 石窟寺院의 性格

韓國의 石窟은 印度의 원형보다는 상당히 변형된 상태로 造營되었고, 그 형식은 대체로 中國의 石窟型式과 유사하나 慶州의 石窟庵 같이 印度 石窟의 형식을 남긴 예도 있다. 앞으로 韓國의 石窟寺院이 가지는 몇 가지 특색을 지적하여 그 성격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첫째, 韓國의 石窟은 모두 禮拜窟이지 僧院窟인 Vihara가 없다. 대개 石窟에는 地上에 건축된 僧侶의 居處가 딸려 있으나 印度나 中國의 敦煌에서와 같이 암벽을 파서 만든 예는 없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지적할 수는 없지만 韓國에는 자연암벽을 개착한 石窟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아울러 감안하면 石窟을 造營하고 佛像을 봉안함으로써 만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옆에 다시 僧院窟을 개착하는 난공사를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 있었고, 印度에서와 같이 굳이 石窟 속에서 생활해야 할만큼 기후조건이 나쁘지 않았으므로 僧侶의 거처는 石窟에 인접해서 地上에 경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慶州의 石窟庵은 본래 石佛寺에 속했던 禮拜窟이었다는 점은 뚜렷한 사례이다.

이렇게 보면 石窟은 寺院의 중심건축물이 아니라 寺院에 속한 하나의 예배장소로서의 의미가 더 크게 된다. 말하자면 印度의 石窟型式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실지 造營에 있어서는 中國의 石窟型式을 受容하고 여기에 다시 韓國의 자연조건이 작용하여 中國과도 다른 石窟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둘째, 자연암벽을 개착한 石窟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公州 부근의 자연동굴에 약간 가공한 百濟時代의 石窟이 있으나⁽⁵⁾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造營이 아닌만큼 본격적인 石窟寺院이라고 할 수 없고, 자연의 암벽을 개착

(2) 同, p.95.

(3) 李懷讓：重修莫高窟佛龕碑(敦煌文物研究所論, 敦煌莫高窟, 1980 所收), p.216.

(4) 三國史記 卷第 41, 列傳 第一, 金庾信上.

(5) 金永培：公州 西穴寺址와 遺物(考古美術, 第 6 卷, 第 5 號, 1965).

朴容填：西穴寺址와 南穴寺址 研究(公州教大學報, 第17號, 1966).

한 石窟은 統一初期에 造營된 慶尙北道 軍威에 소규모의 石窟이 있을 뿐이다. 印度나 中國같이 자연암벽을 개착한 石窟의 造營이 없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규모의 石窟을 개착할만한 岩山이 없는 점과 석질이 石窟을 개착하기 힘든 화강석이라는 데 있었을 것이다.

또한 印度나 中國의 石窟의 모든 시설이나 조각들은 암산을 파들어 가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서 만들었지만 그러한 石窟은 韓國에서는 全無하며 軍威窟만 하더라도 石窟은 동굴같이 파고 별도로 조각한 三尊像을 안치한 것이기에 수법에 있어서도 印度나 中國의 石窟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세째, 韓國의 石窟은 거의 모두가 人工으로 축조된 것들이다. 人工을 가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 ① 몇 개의 자연암벽으로 공간이 생길 경우 이 암벽 위에 木造構造物을 덮어서 石窟을 형성한 것.
- ② 磨崖佛 앞에 木造構造物을 달아서 石窟의 형태를 만든 것.
- ③ 人工으로 石窟 전체를 축조한 것들이다.

①의 자연암벽으로 형성된 공간 위에 지붕을 씌워서窟을 형성한 형식은 암벽이 자연히 형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의 조건을 이용하여窟을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하며, 입구만을 개방한다면窟로서의 조건은 갖추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窟을 형성하기에 적당한 자연암벽을 만나지 못하면 불가능하게 되므로 그 예는 극히 적다.

②의 磨崖佛 앞에 木造架構를 加設한 예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의 발생요인이 磨崖佛을 조각하였을 때 그 앞에 예배의 장소가 필요하게 되므로 露天이면 불편하였던 탓이었는지, 또는 佛像 자체를 보호하기 위함인지 혹은 石窟의 형태를 의식한 결과인지 확연하지는 않다. 그러나 中國에서는 石窟을 파고 그 앞에 木造 前室을 가설하는 예가 있으므로 石窟 아닌 磨崖佛 앞에 木造架構를 첨가한 형식이 中國 石窟의 형식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中國式 石室型式의 약식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③ 石窟 전체를 人工으로 축조한 慶州 石窟庵

은 佛像을 안치한 主室은 돌을 이루었고, 여기서 연속되는 前室은 전면이 개방되어 이곳에는 木造 지붕을 덮었다. 이러한 石窟의 石造構造는 수백 개의 돌을 이용하여 人工으로 구축한 다음 主室의 외부는 후면의 산의 경사가 연속된 것 같이 보이게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韓國의 石窟寺院은 印度나 中國에서 얻은 지역을 토대로 韓國에서의 제약과 조건에 맞게 변형시킨데 韓國 石窟寺院으로서의 성격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新羅 石窟寺院의 類型

新羅時代 石窟寺院의 類型의 윤곽은 前章에서 대체로 드러났다고 생각되나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검토하기로 한다. 新羅時代 石窟寺院의 類型은 대개 다음 네 가지로 분류된다.

- ① 第一型式 神仙寺 石窟型
- ② 第二型式 榮州 可興里 磨崖佛窟型
- ③ 第三型式 軍威 三尊窟型
- ④ 第四型式 慶州 石窟庵型

第一型式 神仙寺 石窟型(圖 1)

慶州 서쪽에 높이 327m의 斷石山이 있고, 그 頂上 가까이에 一大 天然石窟이 있다. 이 石窟이 天成의 암벽을 이용한 石窟인 점에서는 第三型式과 같으나 암벽을 파지 않고 地上의 암벽을 이용한 점이 다르다. 東·南·北쪽에 거대한 암석 4개가 솟았고, 西쪽으로 개방하여 ㄷ形이 된 암석 위에 지붕을 덮어 石窟을 형성하였다. 이들 암석 내벽에는 佛像과 銘文이 조각되어 있어 다음에 둘 第二型式과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르다. 佛像은 三尊立像이 중심이고(圖 2)(本尊 높이 8.2m, 菩薩 높이 3m, 2.1m) 南쪽 끝의 암벽에는 1m 내외의 7軀의 佛像을 조각하였으며(圖 3), 그중에 半跏像 一軀가 포함되어 있음은 주목된다(圖 4). 이같은 형식으로 보아 이 石窟이 예배굴인 동시에 新羅의 名將 金庾信이 三國을 통일하고자 斷石山 石窟에 들어가 하늘에 맹세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修道窟일 가능성도 있다.⁽⁶⁾

이와 같은 형식의 石窟은 韓國內에서도 他例가 없을 뿐 아니라 印度나 中國에서도 찾을 수 없다.

(6) 註 (4)

다만 이石窟이 印度나 中國의 형식을 파악하고도 韓國에서의 제약으로 인한 변형이 불가피하였던 결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은 韓國의 다른石窟型式과 비교하여도 상이점이 있는 동시에 또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첫째, 이石窟이 天然의 岩石을 이용한 점은 第三型式인 軍威窟과 유사하나 軍威窟이 天然岩窟에 人工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佛像을 조각한 이외에는 人工을 가한 흔적을 볼 수 없다. 둘째,石窟 內壁 전체에 걸쳐 佛像을 조각한 점은 第四型式인 慶州石窟庵과 유사하나石窟庵이 중앙의 如來像을 중심으로 모든 眷屬像을 배치한데 비하면 여기서는 二尊像이 중심이 되었고 守護像들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石窟彫像에 半跏像이 포함되어 있음은 이石窟의 성격을 판정하는데 많은 시사를 던져준다고 하겠다. 세째, 開放된 암벽 위를 덮고 기와를 입혀 木造構造를 架構한 점은 第二型式인 榮州 可興里 磨崖佛窟과 유사하나 그 의미가 다르다. 神仙寺의 경우는 3면이 암벽으로 막힌 정상부를 덮어서窟을 형성하였지만 可興里의 경우는 三尊 전면에 木造架構가 있어 예배의 장소를 만든데 불과하다. 따라서 神仙寺는 그 자체가窟을 형성하였으나 可興里는 佛像이 조각된 암석만을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磨崖佛에 지나지 않으나 앞에 木造架構를 加設함으로써 비로소石窟의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石窟 자체의 형성에는 人工的인 면이 뚜렷한 점은 공통된다. 印度나 中國의 경우 人工을 가하는 이유는 어떠한 시설이나 조각을 위한 것이지石窟 자체는 자연암산을 개착한데 비하면 많은 변형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第二型式 榮州 可興里 磨崖佛窟型(圖 5)

榮州市內에서 西쪽으로 약 2km지점에 岩山이 있어 이곳에 三尊像을 조각하였다(本尊 높이 3.2m, 薩菩像 높이 2m, 2.3m), 이 佛像이 조각된 岩石 앞에는 그다지 넓지 않은 바위가 있어 이곳에 圓形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다(圖 6). 이 구멍으로 보아 佛像 前面을 덮는 시설이 있어 예배의 장소를 삼았던 것이 틀림없다. 이 형식은 中國의石窟과 같이 암벽에 佛像을 조각하고 그 앞에 木造 前室을 부가하는 형식과 매우 유사하

다. 다만 可興里의 경우 佛像을 龕形 속에 조각하지 않고 암석에서 돌출된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형식이 新羅時代의 소규모 磨崖佛에는 많이 있겠지만 이 예와 같이 木造架構의 遺構가 뚜렷이 남은 예는 많지 않다(圖 7).

第三型式 軍威 三尊窟型(圖 8)

자연의 암벽을 파고(높이 4.25m, 깊이 4.3m) 三尊을 봉안한 岩窟의 형식이다(圖 9).窟 자체에는 크게 가공한 흔적이 없으므로 자연히 형성된 동굴에 약간 人工을 가한듯 입구나 내벽이 거칠다. 그러나 人工으로窟을 축조하지 않고 岩穴을 이용한 점은 印度나 中國石窟의 원형에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石窟에는 三尊像을 봉안하여 禮拜窟임이 분명한데 三尊像은 암벽과는 석질이 달리 別造하여窟內로 반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本尊 높이 2.2m, 菩薩像 높이 1.9m, 1.8m). 다만 本尊 後壁에 火焰文을 조각하고 밑에는 좁은 턱을 만들어 그 앞에 놓인 別造의 臺座에 걸쳐서 本尊을 올려놓았다(圖 10). 三尊을 별도로 조각한 이유는窟 자체가 소규모일 뿐 아니라 자체의 암벽을 파서 圓刻의 佛像을 조각할 때 석질의 경도에서 오는 난점, 기술적인 미숙 등이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新羅時代의石窟型式 가운데서는 가장 印度나 中國의石窟型式을 충실히 살리고자 한 점이 보인다.

이와 함께 지적해야 할 것은 자연동굴에 약간 가공하여 僧侶의 修道處로 이용한石窟이 이미 百濟時代에 있었고, 新羅時代에도 기록을 통하여 이러한 類의 修道窟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⁷⁾ 修道窟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百濟時代의 修道窟은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규모일 뿐 아니라 禮拜窟에 부수된 것도 아니다.

이상에서 볼 때 자연의 岩壁을 이용했다는 점이 印度나 中國의石窟과 유사할 뿐 ① 천연동굴을 이용한 점, ② 禮拜窟일 경우 佛像을 별도로 조각하여 봉안한 점, ③ 修道窟일 경우 修道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單獨窟이라는 점 등 印度의石窟寺院에 비하면 많이 변형되었다.

第四型式 慶州石窟庵(圖 11)

慶州石窟庵은 韓國石窟寺院의 대표일 뿐 아

(7) 三國遺事 卷 3, 阿道基羅, 同 卷 5, 包山 2聖, 同 卷 5, 布川山 五比久 등 條 參照.

나라 印度 石窟寺院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우선 구조를 보면 方形의 前室에는 八部衆像을 배치하고 窟과의 짧은 접속부에는 仁王·四天王의 守護神을 조각하였으며 窟 입구에는 좌우에 8각석주를 세웠다. 圓形의 窟內에는 중앙의 如來像을 중심으로 周壁에 菩薩·天部·羅漢 등 15軀의 像을 조각하였고, 이 彫像들 위에는 10個의 龕室을 만들고, 그 안에도 佛像을 따로 조각하여 안치하였다. 중앙 如來像 바로 후면 벽에는 大蓮花石이 있어 光背를 삼았고, 천정은 돔形이 되어 그 중앙 정상에도 蓮花石이 있다. 또한 如來像 후면 앞에는 작은 臺石이 놓여 있으나 원래는 이 돌 위에 大理石 5層塔이 있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구조는 印度의 Chaitya窟을 방불케 하니 그중 몇 가지 점을 지적하면,

첫째, 平面프랜을 보면 前方橢圓形으로 이는 Ajanta 10窟이나 26窟과 매우 유사하다(圖 12). Ajanta窟의 前室은 방형이며 窟內의 구석 벽은 圓形을 이루었고, 그 중심에 塔을 안치하였으며 周壁은 모두 彫像으로 차 있다. 다만 Ajanta石窟의 主室이 馬蹄形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石窟庵은 正圓이 있는 점이 다르다.

둘째, 窟 입구에 雙柱가 있는 점이다. 印度의 Chaitya窟에는 입구에 모두 雙柱가 서 있어 이 형식을 따랐음이 분명하다. 다만 印度의 Chaitya窟에서는 雙柱와 함께 窟內에 列柱가 있는데(圖 13), 石窟庵에서는 이 列柱가 생략된 점이 다르나 이는 규모가 작은 탓으로 생각된다.

셋째, 천정이 돔을 이루고 있는 점이다. 印度의 Chaitya窟에서는 아치형 천정에 서까래 모양이 있고 특히 Chaitya 정상에는 서까래 모양이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뻗어 돔을 이루고 있다(圖 14). 石窟庵의 경우는 如來像 정상에 大蓮花石을 중심으로 돔을 이루었고, 서까래形 대신 窟內로 약간 내밀린 石材의 끝이 단을 이루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차츰 수가 많아져 방사형으로 되었다(圖 15). 이 석재는 깊게 박혀서 그 사이의 石材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구조나 외형은 印度의 石窟과 다르나 돔의 頂點에서 방사형의 효과를 낸 점에서는 일맥 상통하는 바가 있다.

네째, 周壁 상부에 龕室을 설치한 점이나 Ajanta 第19窟이나 第26窟 列柱 위에 佛像을 조각한 龕室을 연속하여 설치한 점과 같다(圖 16). Ajnata의 石窟이 긴 공간이므로 列柱의 수나 龕室의 수가 많으나 石窟庵의 경우는 소규모의 원형이므로 10개 밖에 안되지만 기본설계는 같다(圖 17). 다만 Ajanta의 龕室이 방형인데 비해 石窟庵에서는 반원형인 점이 다르다.

다섯째, 印度의 Chaitya窟에서는 Chaitya를 안치하였으나 石窟庵에서는 佛像을 안치하였다(圖 18). 이 점은 서로 유사성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Bhājā窟(B.C. 2세기)에서 Kārli窟(A.D. 2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Chaitya에는 塔 표면에 특별한 조각이 없으나 이 시기가 지나면 塔 前面에 龕室을 파고 佛像을 조각하여 예배의 대상이 차츰 塔에서 佛像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圖 19). 石窟型式이 中國에 전해져 敦煌에서 최초로 石窟을 造營한 시기는 印度에서는 이미 塔婆崇拜의 시기가 지난 4세기 후반이어서 Chaitya를 안치한 石窟은 볼 수 없고 모두 佛像으로 대체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石窟庵 窟內 중앙에 佛像을 안치함은 中國을 거쳐온 石窟型式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으니 如來像 바로 뒤에 5層塔이 있었다는 사실과(圖 20)⁽⁸⁾ 1913년 수리 때 千佛이 조각된 小形의 파탑이 발견된 일이다. 따라서 窟內에는 主尊과 더불어 塔을 봉안하였음이 분명하며 이러한 형식은 두 가지 방향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印度의 후기 Chaitya窟에서 塔前面에 佛像이 조각되고 숭배의 대상이 塔에서 佛像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佛像과 塔이 분리되면 결국은 石窟庵과 같이 佛像 후면에 塔을 배치하는 형식이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中國의 石窟에서 佛像과 함께 왕왕 木造重層樓閣 형식의 塔을 조각하여 塔과 佛像을 동시에 배치한 형식과도 상통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石窟庵 石窟이 자연암벽을 개착한 것이 아니고 인공의 石窟이지만 自然石窟의 형태를 최대한으로 재현하였으며, 더우기 印度 Chaitya窟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은 韓國

(8) 奥田悌：慶州古蹟誌.

의 石窟寺院 가운데서도 뚜렷한 한 형식으로서 지적되어야 할 것이며, 이 石窟庵의 築造에는 景德王이라는 新羅時代에 불교예술의 꽃을 피웠던 君主가 治世하던 때라는 시대적 배경과 실지의 축조에 있어서는 지리적 위치와 방향 내지는 東海에서 침입하는 외적을 방어한다는 정신적인 보루로서의 의미, 즉 군사적인 면도 겸하고 있었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石窟庵과 유사한 인공의 石窟의 또 한 예로서 慶州 南山의 三花嶺彌勒三尊을 봉안했던 石窟을 들어야 하겠다. 이 石窟은 발견 당시 이미 손상을 입어 古墳으로 오해할 정도였으나 이 三尊像은 현재 國立慶州博物館으로 옮겼고 현장에는 石窟의 흔적만 남아 있으나 1925년 이 佛像을 옮길 무렵에는 方 약 2.1m의 石室 남쪽에 폭 1.2m, 길이 2.4m의 통로가 있고 佛像은 窟內 구석에 남면해 안치되었었다(圖 21). 窟의 구조는 1925년 이전에 이미 많은 파손을 입고 있으나 아마도 큰 자연석을 세우고 위를 덮어 石窟을 형성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⁹⁾ 이러한 구조로 보아 이 石窟은 三尊만을 봉안하기 위한 소규모의 石窟인 동시에 인공으로 만든 石窟인 점에서 石窟庵 石窟型式과 공통된 형식이라고 하겠다.

이 三尊像은 7세기 전반의 제작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石窟의 축조 또한 이 시기였을 것이므로 石窟庵 石窟보다는 1세기 이상 앞서며 軍威窟보다는 약 半세기 앞서고 神仙寺窟보다는 약 半世紀 뒤진다.

IV. 結 語

이상 新羅時代의 石窟寺院을 중심으로 그 특색을 지적하고 類型을 분류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점으로 歸納될 수 있을 것이다.

① 新羅時代 石窟寺院에는 Chaitya가 없다. 印度에서는 5세기 이후 힌두敎의 石窟이 개착되면서부터 Chaitya窟이 자취를 감추게 되지만 中國에서 이미 佛像을 主尊으로 삼는 형식이 성립되어 그러한 형식이 전해진 까닭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서 印度의 Chaitya窟을 가장 충실히

재현한 慶州 石窟庵 石窟의 출현을 보게 되었으니 이는 印度 石窟의 本態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고 예술 의욕과 표현 기술이 향상된 결과로 보인다.

② 따라서 新羅時代의 石窟寺院은 거의 모두가 禮拜窟이고 여기 Vihara窟이 따르지 않아서 엄격한 의미에서 石窟寺院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것은 韓國의 자연조건으로 인해서 변형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여기서 거론한 4개처의 표본 石窟에 조각된 佛像의 尊名은 神仙寺窟을 제외하고는 모두 阿彌陀佛이다. 神仙寺窟은 銘文에 의하여 彌勒佛임이 분명하고 可興里磨崖佛窟은 右脇侍菩薩 寶冠에 있는 寶瓶으로, 軍威三尊窟은 左右脇侍菩薩 寶冠의 化佛과 寶瓶 또는 左菩薩이 寶瓶을 잡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모두 阿彌陀佛임을 알 수 있고, 石窟庵의 本尊은 創建因緣이나 地理的 위치 또는 기록을 통하여 阿彌陀佛로 추정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신앙대상이 彌勒佛에서 阿彌陀佛로 옮겨가는 과정을 볼 수 있으니 이는 石窟 이외의 佛像造成에서 나타나는 바와도 같다.

④ 이들 石窟의 造成年代의 추정은 결국 窟內의 佛像樣式이 기준이 되겠고, 특히 石窟庵의 경우는 기록을 아울러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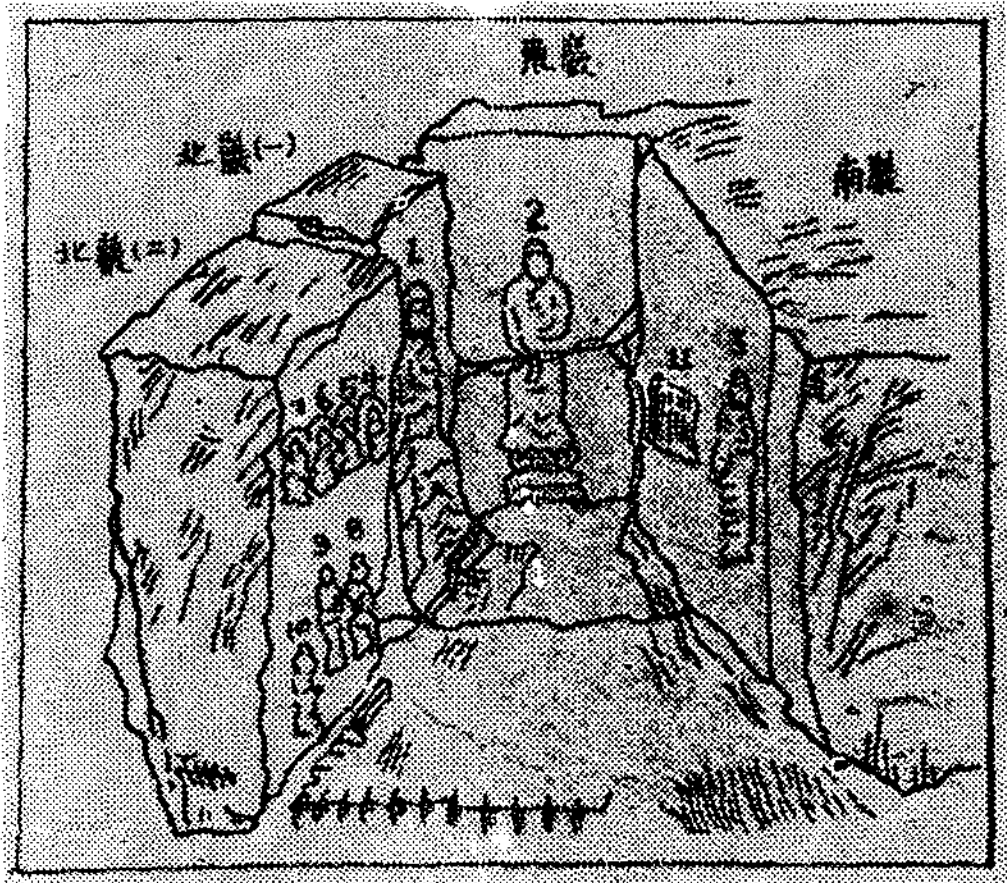
神仙寺 石窟	6世紀 後半
榮州 可興里 磨崖佛窟	7世紀 後半
軍威 三尊窟	7世紀末
石窟庵 石窟	8世紀 中葉

이 造成年代와 石窟庵 형식을 종합하면 韓國 石窟寺院의 변화과정도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⑤ 印度의 Ajanta, 中國의 敦煌 등의 石窟에는 채색의 벽화가 있어 회화적으로도 매우 주목되고 있는데 新羅時代의 石窟에는 벽화가 없다. 다만 石窟庵의 彫像과 軍威窟 本尊의 光背에 채색한 흔적이 있으나 印度나 中國의 본격적인 壁畫와는 거리가 멀다.

⑥ 끝으로 新羅 石窟寺院의 형식은 高麗 石窟에 계승되어 忠淸北道 槐山의 彌勒里石窟(圖 22), 慶尙南道 河東의 理盲窟(圖 23) 등의 人工窟이 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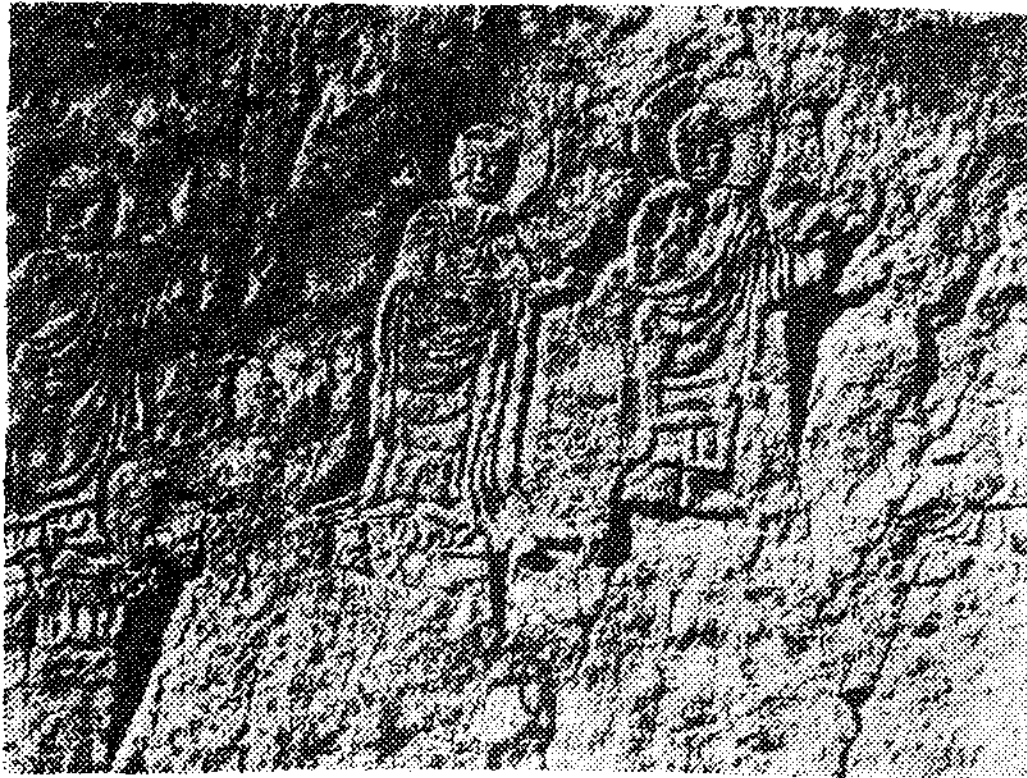
(9) 小場恒吉：慶州南山の佛蹟(朝鮮總督府, 1940).



〔圖 1〕 神仙寺 透視圖



〔圖 2〕 神仙寺 如來像



〔圖 3〕 神仙寺 彫像群



〔圖 4〕 神仙寺 半跏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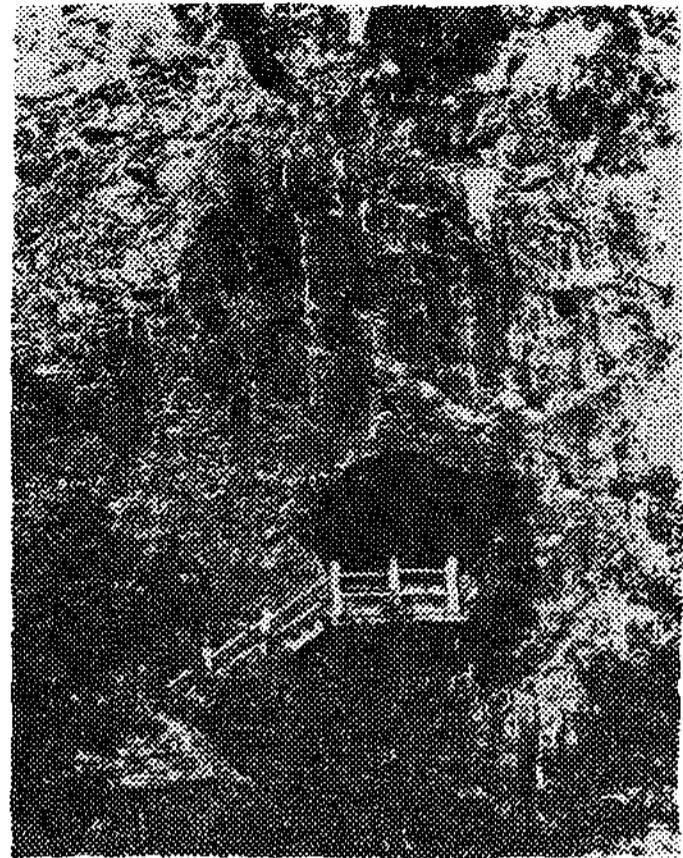
〔圖 5〕 可興里 磨崖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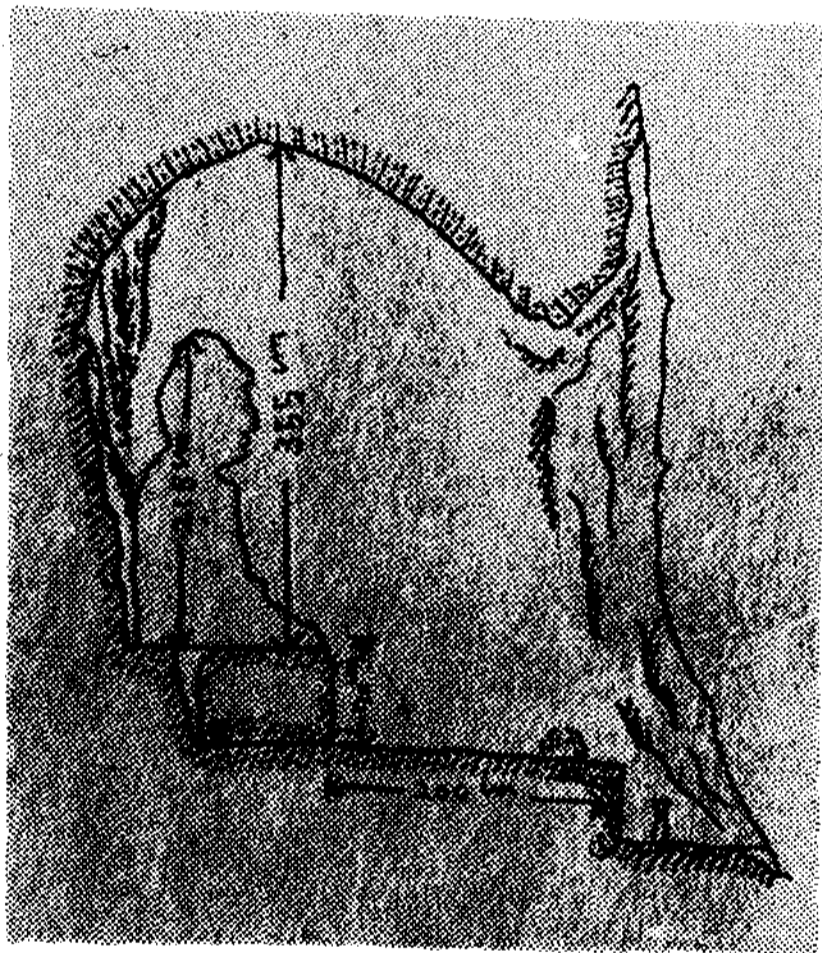
〔圖 6〕 可興里 磨崖佛 空圓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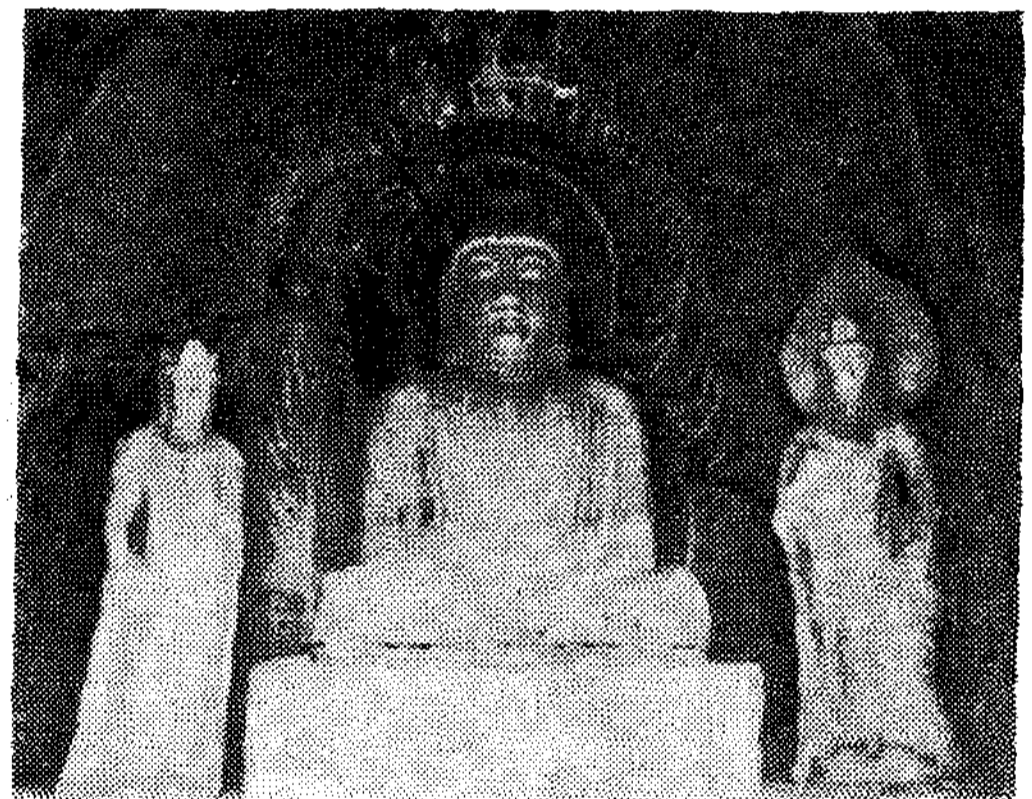
〔圖 7〕 北枝里 磨崖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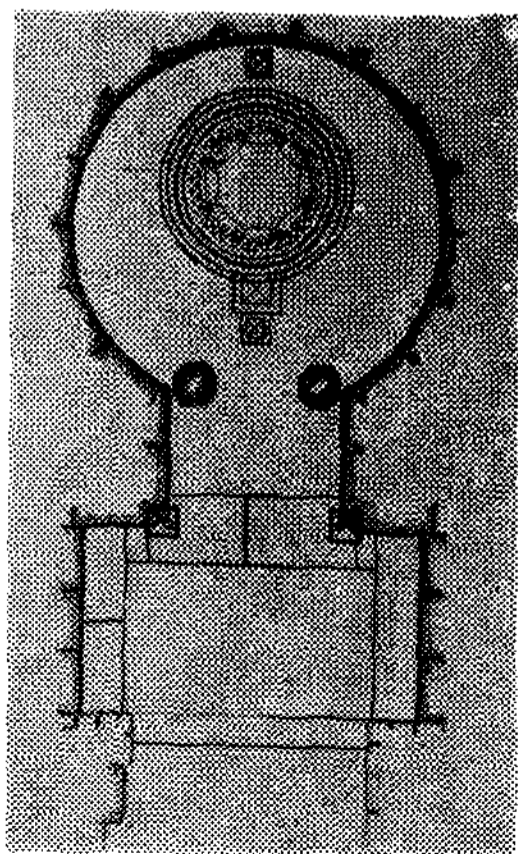
〔圖 8〕 軍威窟 遠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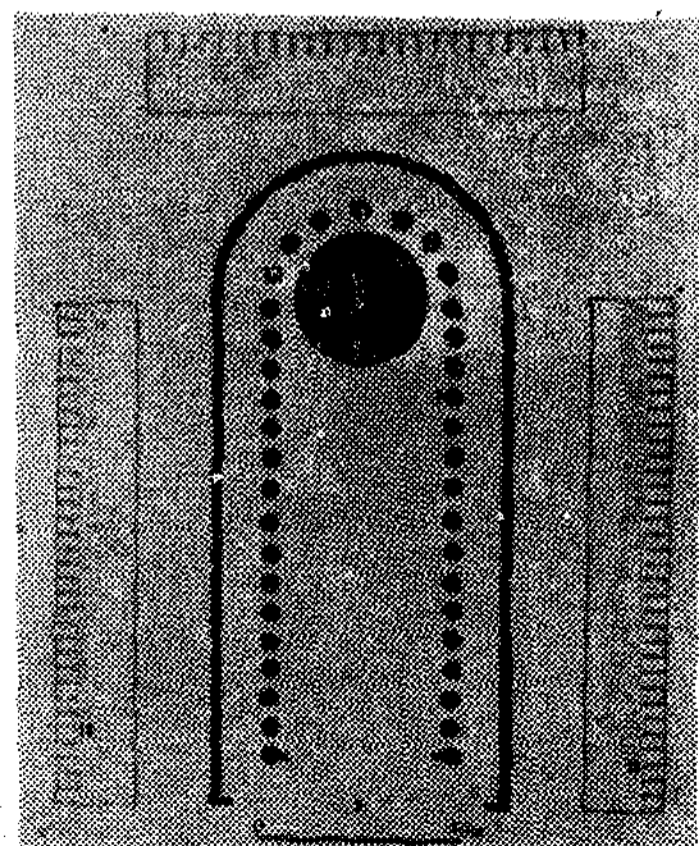
〔圖 9〕 軍威窟 斷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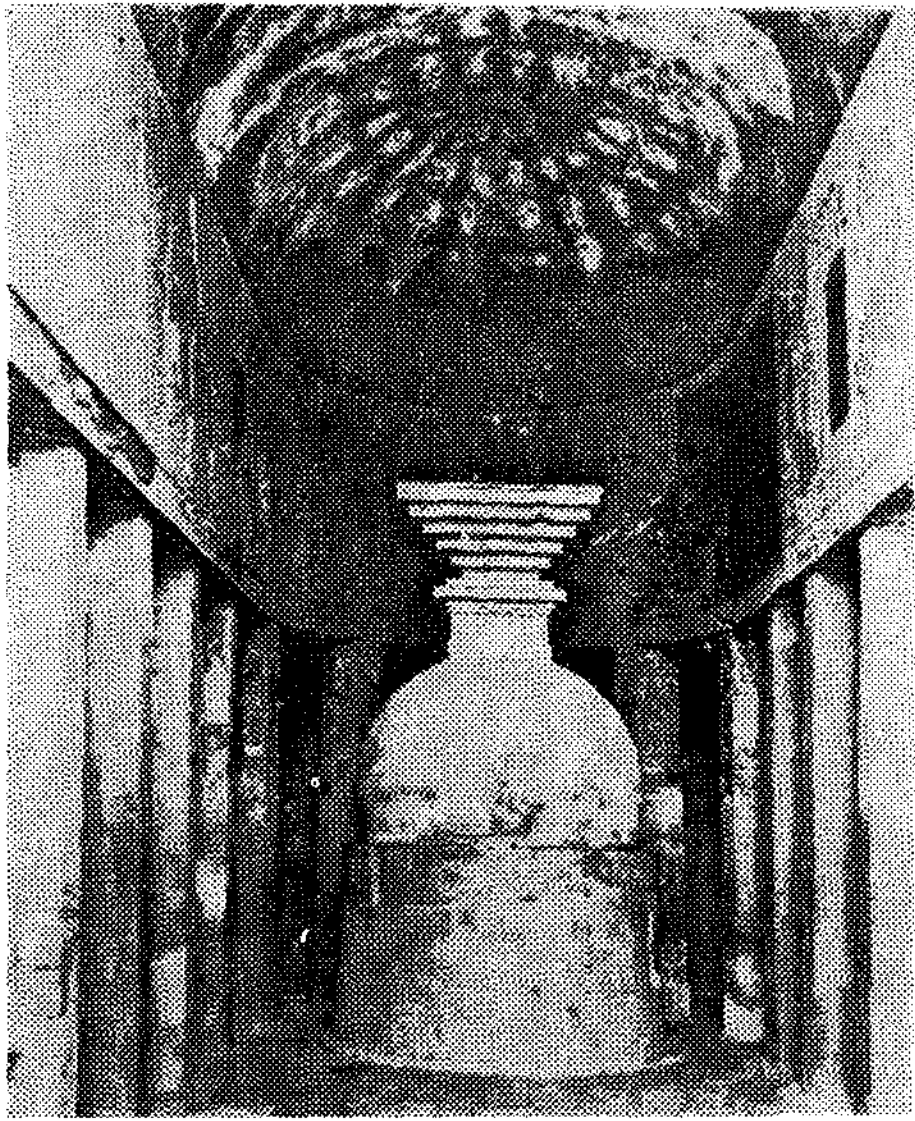
〔圖 10〕 軍威窟 佛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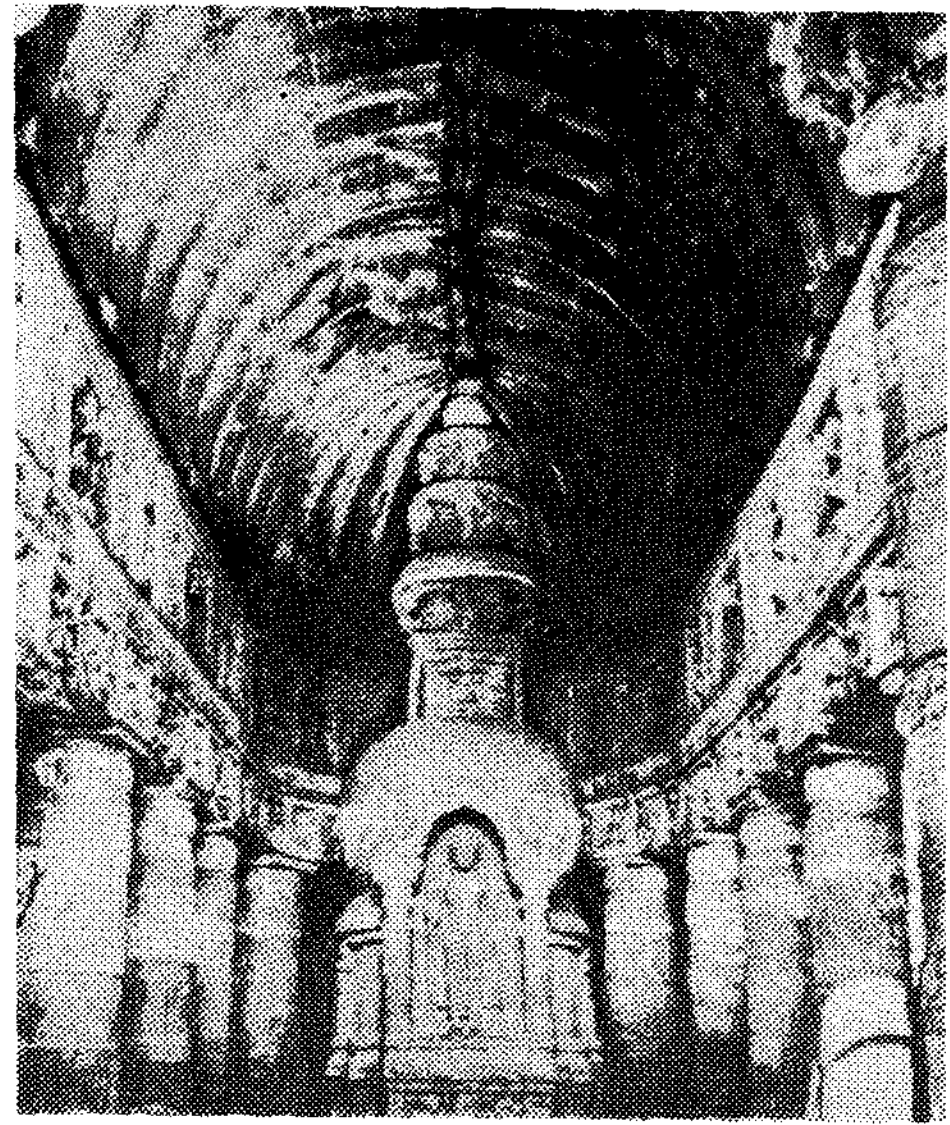
〔圖 11〕 石窟庵 平面圖



〔圖 12〕 Ajanta 10窟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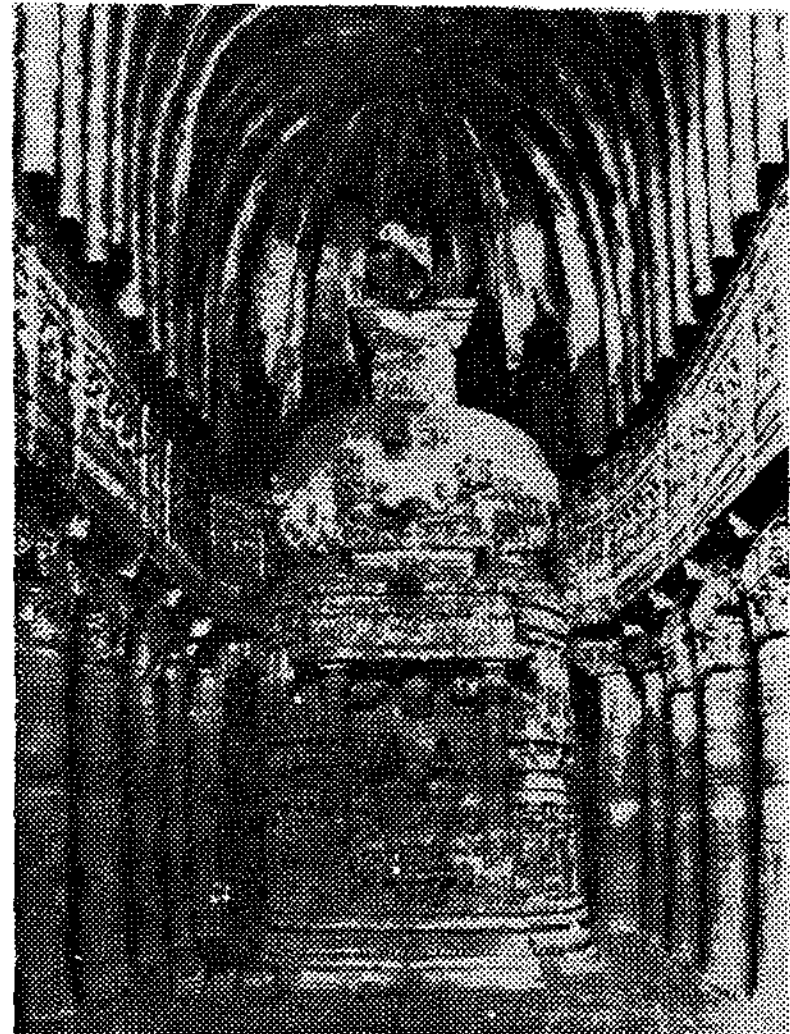
〔圖 13〕 Ajanta 9窟



〔圖 14〕 Ajanta 19窟



〔圖 15〕 石窟庵 天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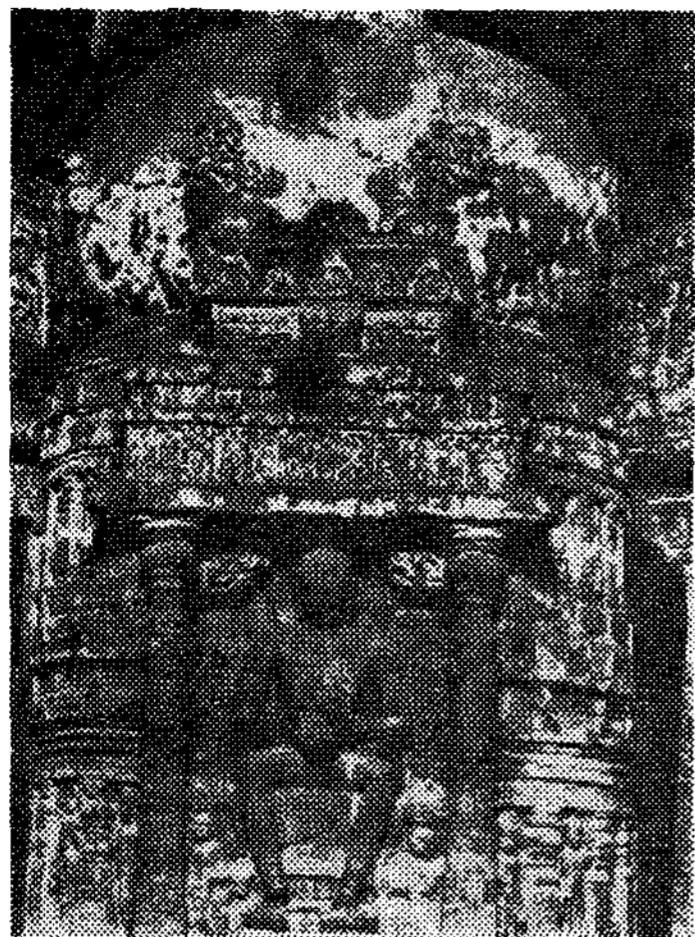
〔圖 16〕 Ajanta 26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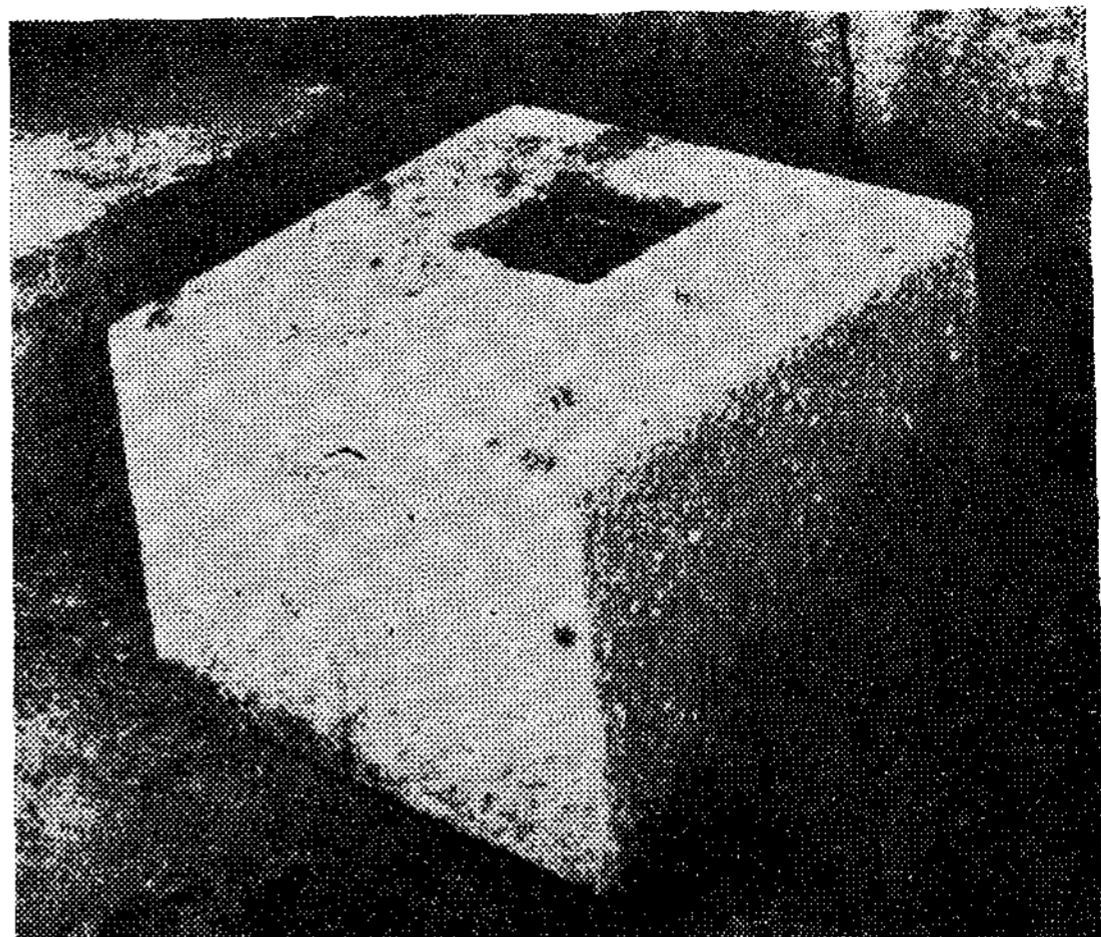
〔圖 17〕 石窟庵 龕室



〔圖 18〕 石窟庵 本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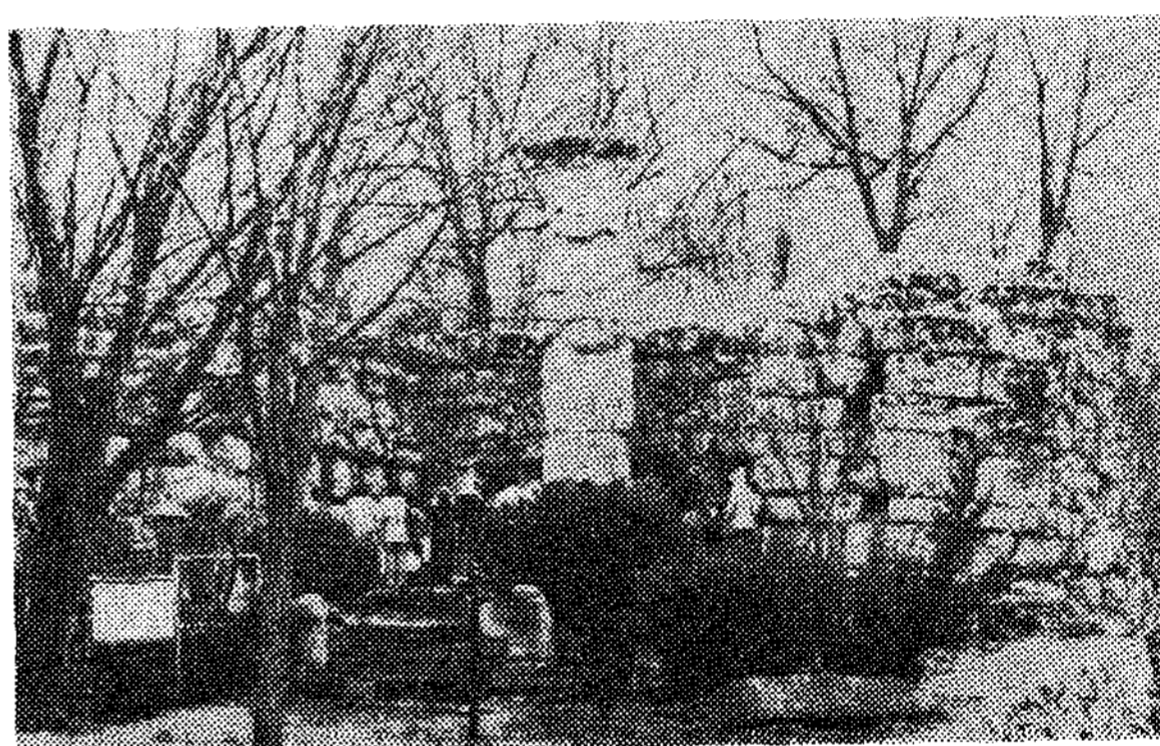
〔圖 19〕 Ajanta 26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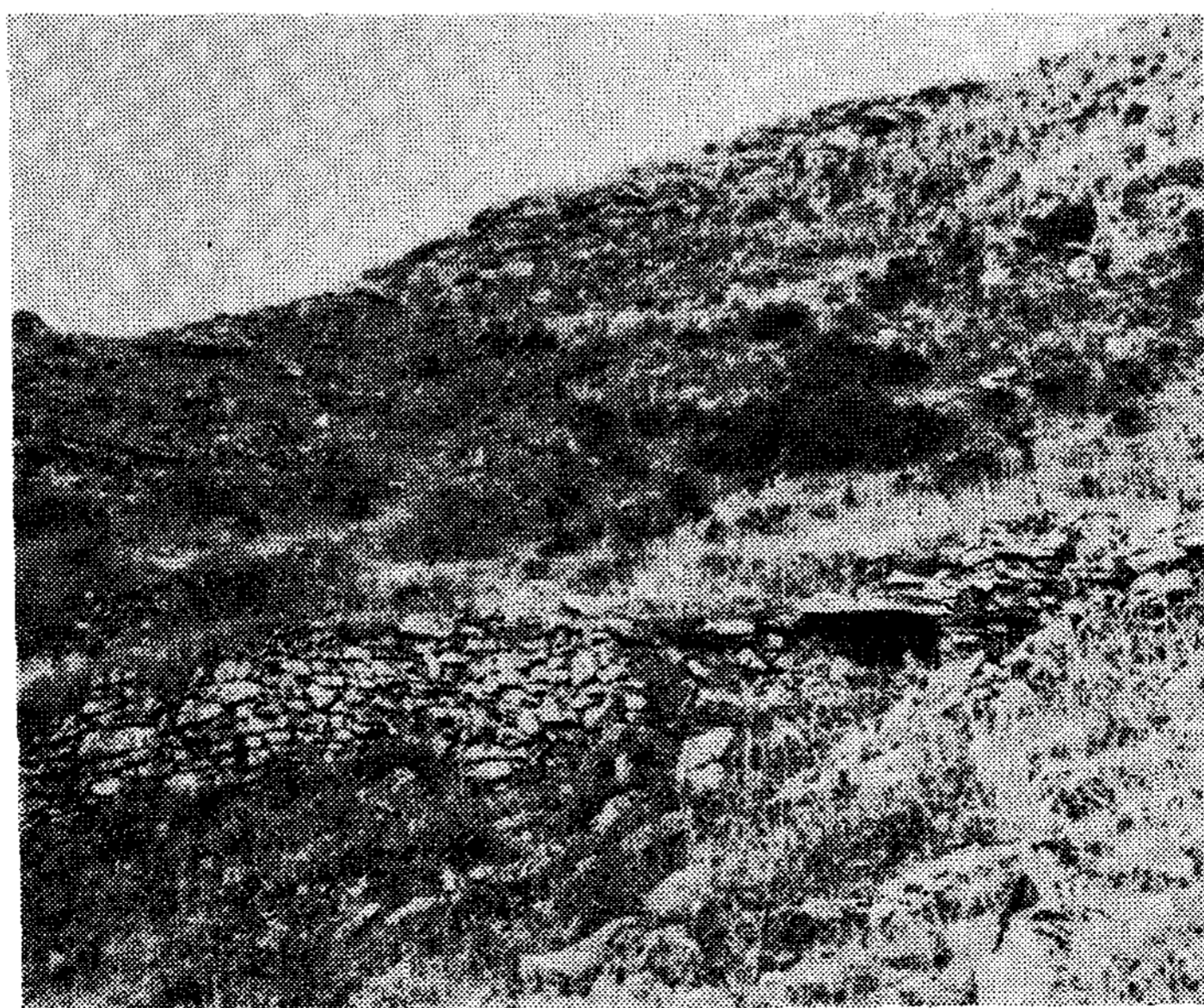
〔圖 20〕 石窟庵 塔基石



〔圖 21〕 三花嶺 舊景



〔圖 22〕 槐山 石佛



〔圖 23〕 河東 理盲窟